

정부 '위기의 후산업 구하기' 팔 걸었다

부품업체 유동성 지원·할부금융 활성화

경쟁력 강화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기로

정부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위기에 빠진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업종을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켜내야 할 전략 산업으로 보고 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자동차 판매증진을 위한 할부금융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지식경제부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

다"며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과 취약업종에 집중해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상계 관세를 부과 받을 수 있어 금융권을 통한 간접지원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소비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자금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쌍용차의 경우 매출 악화로 이달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금융당국은 자동차산업의 유동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른 부품업체 자금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도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과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를 기업은행과 현대차그룹이 조성한 상생협력펀드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경제에 따른 할부금융시장 위축이 자동차 판매부진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따라 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캐피탈(할부금융·리스)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판매회사가 캐피탈사를 경유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이 자동차할부매출채권에 보증을 서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정이 악화되면서 보통 1-3차로 나눠지는 밴더(하청업체)들 사이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2차 밴더가 어려워지면 이걸 1차 밴더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데 합병결사를 빨리 진행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GM대우는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른 자금책으로 이날 부평, 창원 군산 등 전 공장의 가동을 중단, 8일간 조업을 멈춘다.

주택대출 금리 4%대로 하락

CD 금리 연일 큰 폭 내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연일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가 연 4%대에 진입했다.

22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91물 CD 금리는 전날보다 0.10%포인트 내린 4.09%로 마감했다. 이는 2005년 12월 30일 4.09% 이후 최저치다.

CD 금리는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내리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져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빚을 낸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다소 덜게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3일 기준 연 4.97~6.27%로 하루 사이에 0.09%포인트 낮아졌다. 하나은행은 연 5.19~6.99%를 적용한다.

"가계·중소 부실 막기 대출만기 연장 해줘야"

금감원장 은행권에 요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은행들에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조치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등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업은행장 등 7개 은행장과 만나 "최근 위기는 서서히 진행돼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에도 은행들은 여전히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의 실적이 부진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월은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나 기업재무구조개선 등을 감안할 때 올해는 과거와 상황이 다른 만큼 은행들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 없도록 연말이든 연초든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통해 2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은행들도 이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면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3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2월 들어 18일 현재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며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은행장이 직접 나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영업창구를 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대·기아차 '감산 한파' 비상 경영

글로벌 환경 악화... 혼류 생산 등 시장 적극 대처

현대·기아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최근 악화된 글로벌 경영환경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조업단축 및 혼류생산 등 유연생산체제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2일 "올해 판매실적이 당초 480만대 예상에서 420만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해의

재고가 106만대(3년9개월 물량)에 달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12월부터 평균 4시간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랜저와 쏘나타의 수요감소로

이번 주부터 현대차 아산공장은 주·야 4시간 생산체제로 전환했고, 전주공장은 버스생산라인을 2교대에서 1교대로 변경해 불황타가에 돌입했다.

이와함께 관리직 임금동결 등 전 임직원 각오를 새롭게 하는 정신 재무장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관리체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방학생활 계획 도자기에 그려서 22일 오전 서울 청계8가 한국도자기 분사 사옥에서 열린 겨울방학 맞이 어린이 핸드프린팅 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도자기에 직접 그린 생활계획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조 규모 정책자금 중소기업에 저리로 빌려준다

내년 정부가 4조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중소기업에 싼 이자로 빌려준다. 특히 내년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업체들의 자금난을 고려, 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푸는 동시에 한시적 운전자금 지원을 늘리고 융자 기준도 낮춘다.

중소기업청이 22일 발표한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 창업초기기업 육성 ▲ 사업전환 ▲ 개발기술사업화 ▲ 긴급경영안정 ▲ 신성장기반 ▲ 지방 중기 경쟁력 강화 ▲ 자산유동화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모두 4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천억원(35%)이 늘어난다.

지난달 17일 이후 19일 현재까지 이미 9천500억원 규모의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최근 경제난으로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기청은 운전자금 용도 제한 조건을 완화, 인건비·관리비 등 경영활동 전반에 필요한 일반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시설투자까지 동반될 경우 운전자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농·수협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농민 실질 혜택... 경제사업 강화 조합간 경쟁 유도... 합병도 허용

농림수산식품부가 22일 청와대에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에는 대통령까지 최근 관심을 보인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안의 밑그림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는 농·수협 개혁위의 안을 토대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과 수협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인사권 박탈 - 권한 조적·인력 축소 = 농협중앙회의 경우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해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경제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의 큰 줄기를 잡았다.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없애 사실상 명예직으로 만들고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의결기구가 되도록 하고 감사기구는 독립성을 키워줄 방침이다.

중앙회 사업 대표이사의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사업계획을 집행하고 이사회는 그 성과를 평가·감독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 조합간 경쟁 유도 - 합병 허용 = 조합원들의 조합 선택권을 허용해 조합 간에 경쟁을 유발하고 합병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부실조합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자격제도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일선조합의 광역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중앙회의 인력 감축, 상위직급(1~2급) 통·폐합, 중앙조직 20% 이상 슬림화, 자회사 통합·수직계열화와 매각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중 전체 조합장의 33%인 388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열리는 만큼 공명선거를 위한 관리기구를 만드는 등 선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개혁의 방향도 비슷하게 잡았다.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해 대외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중앙회장 및 일선 조합장 선출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지도·경제 사업 부문을 통합해 전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적자 사업장 통·폐합, 판매 사업장의 자회사 전환 등으로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파산 우려가 나오는 완도 수협은 내년 초 계약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산림조합도 중앙회 인력을 15%(100명) 줄이고 전 직원 임금을 동결하는 한편 부실조합은 구조조정, 경영 개선 등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장 인사권을 줄여 경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 신안 공공기관 경영효율성 10% 제고 = 공공기관 선진화의 연장 선상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의 인력 감축, 조직 개편 등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1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농촌공사는 최근 노사가 합의한 대로 인력의 15%(844명)를 줄이고 조직의 20%를 축소한다. 정원의 3%에 대해서는 상시 퇴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한국마사회도 인력의 13%(108명)를 줄이고 지원조직의 30%(331명)를 축소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도 부서를 15% 축소하고 인력도 10%(64명) 줄인다.

/연합뉴스

한전 인력 11% 이상 감축

전국 26개 1차 사업소 절반 축소도

한국전력이 전체 인력의 11% 이상을 줄이고 전국 26개의 1차 사업소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대대적 개편에 들어간다.

한전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컨설팅 기업 액션추어의 용역연 구안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사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 24개(실) 89팀인 본사를 21개(실) 70팀으로 감축하고 제주도를 제외하고 판매·배전사업소(9개 본부·7개 지사)와 송변전 사업소(11개 전력관리처) 등 26개 1차 사업소를 13개로 50% 줄이기로 했다.

특히 1차 사업소 축소시 판매·배전 분야와 송변전 분야를 더해 통합형 독립사업부가 되도록 함으로써 사업부간 경쟁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조직개편과 함께 현재 7개인 직급체계가 5개로 단순화하고 7개인 직근분류도 사무와 기술·토건 등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총 2만1천734명인 정원의 11.1%인 2천420명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

/연합뉴스

젓소 송아지값 3만원대 폭락

낙농육우 농민들 대책 요구

낙농육우 농민들이 23일 전국 각지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젓소가격 폭락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국낙농육우협회가 2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전 40만~50만원대에 거래되던 젓소 송아지의 가격은 최근 3만원대 이하로 하락했다. 600kg짜리 육우를 생산하려면 380만원이 들어가는 데 판매수익은 280만원까지 떨어지자 육우 농민들이 송아지를 사들이는 것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실제 젓소 송아지 가격이 최근 3만~10만원 수준까지 폭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값이 크게 오른 데다 경기침체로 쇠고기 수요가 줄면서 육우 가격이 떨어지자 그 여파로 육우농가가 젓소 송아지를 사들이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6일만에 하락세

환율은 다시 1300원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주식시장이 6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6포인트(0.12%) 내린 1,179.61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8포인트 오른 1,189.85로 출발한후 상승폭을

키워 오전 한때 1,200선을 회복했지만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대책이 유보됐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냉각시켜 하락세로 돌아서고 말았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지난 주말에 비해 3.59포인트(1.05%) 오른 346.04에 장을 마쳐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 만에 급등하면서 1,300원대로 복귀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9.00원 급등한 1,30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원시스템	[금주]소프트웨어 개발 SM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4	062-384-1161
주에스테이브로드밴드	[주5일]SK브로드밴드 서비스 상품내내 TM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25	1600-3828
주대영	공사 감독,공무/네트워킹관리(현장)/허드웨어 설계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26	053-621-9936
주대림랜드	[광주/서울]내근직 O.P (일본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6	062-227-4404
MB헬빙센터	인내대스(코디네이터)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12/26	062-655-5677
광명	유통회사 경리업무 거래 및 거래처관리, 재고 자금 관리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27	010-2068-8663
주에스디엠	경리, 영업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2/29	062-974-0085
그린토건	업무부 신입 및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2/29	062-942-4080
한도에너지	[광주/서울]내근직 O.P (일본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9	062-655-4800
엘가제딩	엘가 상담직원 및 메이크업 코디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2/30	010-8247-3838
주아이포스텍	밀링 선반 전문업무 경력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2/31	062-959-4238
윤선생영어교실	[광주/전남]영어상담 및 관리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31	062-526-0566
신안중공업	조선기자재 구매 외 경력사원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12/31	062-717-55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